

李白 <代壽山答孟少府移文書> 역해

趙得昌* · 趙成千**

<목 차>

1. 서 론
2. 본 론
 - 2.1 淮南의 小壽山은
 - 2.2 어제 은자 이백이 거처하는 곳에서
 - 2.3 여러 산에 나라의 보배가 숨겨져 있고
 - 2.4 근자에 은자 이백이 아미산에서 왔는데
 - 2.5 解說
3. 결 론

1. 서 론

李白的 散文은 모두 67편(賦 포함)과 <雜題四則>이다.¹⁾ 이것이 그의 산문 총수라고 할 수는 없다. 전란으로 인하여 산실이 많았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이백의 산문을 문체로 분류하면, 書表序記, 頌讚銘碑, 祭文辭賦이다.

이백의 산문은 그의 삶과 사상을 고증하고, 시를 이해하는 데 보조 자료가 되며, 그의 문학사상 및 예술세계를 조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이백에 대한 연구는 시 작품에 대한 연구 및 번역에 치중

* 協成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副教授 (主著者)

** 乙支大學校 教養學部 助教授 (交信著者 sczhaoh@hanmail.net)

1) 中華書局的 王琦 注 《李太白全集》에는 <比干碑>와 <雜題四則>이 따로 수록되어 있는데, <比干碑>는 《全唐文》에서는 李翰이 지은 것으로 되어 있다.

되어, 그의 산문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특히 연구의 기초가 되는 역주연구는 매우 미미하다. 현재 국내에서 이백 산문에 대한 역주연구는 <春夜宴桃李園序>, <與韓荊州書>, <上安州裴長史書>, <爲宋中丞自薦表>, <地藏菩薩讚>, <爲宋中丞祭九江文>, <이백(大鵬賦)역주와 해제> 정도이다. 국내 이백 학술 연구 열기, 기간, 업적 등을 고려할 때, 그 성과는 매우 부족하다. 이에 필자는 이백 산문 전편을 역주하여, 국내외 이백 연구에 중요 참고자료가 되게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취지에서 <爲吳王謝責赴行在滯表>, <爲宋中丞請都金陵表>, <爲宋中丞自薦表>에 대해 역주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며, 본고에서는 <代壽山答孟少府移文書>에 대한 역주연구를 진행한다. 이러한 연구가 축적되어 결실을 맺는다면, 국내외 이백 산문에 대한 첫 역주 성과가 되고, 이백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원문, 校記, 번역, 註釋, 解說의 형식을 취한다. 원문은 '宋蜀本'을 위주로 하고, 校記에서는 기존 연구 성과를 수록하면서 본 연구에서 새롭게 밝힌 것이 있을 때는 추가한다. 번역은 직역을 위주로 하면서 의미의 원활, 순통을 위해서 보조적으로 의역을 한다. 註釋은 자구 풀이는 물론 관련 用例, 典故 등을 들어 그 원문을 제시하고 번역하여 학술성을 높인다. 또한 기존 연구를 수용하면서 연구자의 새로운 성과를 추가한다. 解說에서는 작품의 해제, 창작연대, 역대평론, 작품의 특성 및 예술성취 등을 고찰한다.

본 연구는 詹鐸 主編 《李白全集校注匯釋集評》을 기본으로 하고, 王琦 注 《李太白全集》, 瞿蛻園·朱金城 校注 《李白集校注》, 安旗 主編 《李白全集編年注釋》 등을 참고로 한다.

2. 본 론

壽山을 대신하여 孟少府의 질의에 답하는 서신 (代壽山答孟少府移文書)²⁾

2.1 淮南의 小壽山은

淮南小壽山謹使東峰金衣雙鶴,³⁾ 銜飛雲錦書於維揚孟公足下曰⁴⁾ : “僕包大

- 2) 壽山: 지금의 湖北省 安陸市 동북쪽 25km 지점에 있다. 부근 산촌민들이 모두 100세까지 살 수 있었기 때문에 壽山이라 하였다. ○孟少府: 이백이 蜀을 떠나 동쪽으로 維揚을 유람할 때 친분을 맺은 友人이다. 그러나 孟少府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牛寶彤, 《李太白文選》(北京: 學苑出版社, 1989, 26쪽, 이하 《李太白文選》이라 함)에서는 “王琦《李太白全集》卷二十七〈秋夜於安府送孟贊府兄還都序〉의 孟贊府가 혹 이 사람인 듯 하다. (王琦《李太白全集》卷二十七〈秋夜於安府送孟贊府兄還都序〉, 其孟贊府或即其人.)”라고 하였다. ○少府: 縣令은 明府라 하였고, 縣尉는 현령의 보좌(縣令之佐)가 되며 少府라 하였다. ○移文: 공문의 일종. ‘移’, ‘移書’라고 하기도 한다. 원래는 동급기관이나 서로 관할, 예속되지 않은 부서 사이에서 사용하였다. 移文과 檄文은 비록 관계가 있으나, 구별이 있다. 격문은 적대 관계에서 나오는 것으로 성토와 토벌에 많이 사용하였다. 문장은 매우 날카롭고, 자기를 높이고 상대를 벌하는데 중점이 있다. 移文은 내부에서 동의하지 않는 의견에서 나오는 것으로 깨우침과 지적에 많이 사용하였다. 문장은 비교적 온화하고 상대의 관점을 바꾸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書: 서신. 說과 합하여 書說類라 한다. 고대에는 서신의 명칭을 확인하게 구분하였다. 신하가 황제에게 올리는 서신은 奏議類에 속하였고, 황제가 신하에게 내리는 서신은 詔命類에 속하였고, 일반인 사이의 서신은 書라 하였는데, 그 가운데는 啓·箋·簡·帖·札·牘 등을 포함하였다. 《文心雕龍·書記》에서 서신의 특징에 대하여 “서간의 체제를 상세하게 총결하면 근본은 자기의 하고 싶은 말을 다 함에 있다. 말로써 울적함을 발산하고, 각자의 풍채를 기탁한다. 때문에 서신을 쓸 때는 유려하고 조리가 있게 하여 자신의 기세를 드러내고, 평온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자신의 마음 속 정회를 드러낸다. 명쾌하면서도 평온하게 써야 또한 마음의 소리를 주고받는 것이 된다. (詳總書體, 本在盡言, 言所以散鬱陶, 托風采, 故宜條暢以任氣, 優柔以憚懷; 文明從容, 亦心聲之獻酬也.)”라고 하였다. 서신체는 내용의 제한이 없고 장단의 구속이 없으며 경물묘사, 의론 등에 모두 적당하다.
- 3) 淮南小壽山: 《新唐書·地理志》에 따르면, 安州 安陸郡은 淮南道에 속하였기 때문에 ‘淮南小壽山’이라 하였다. ○東峰金衣雙鶴: 東峰雙鶴은 壽山 동쪽의 大鶴山·小鶴山을 말한다. 《湖北通志》권7·《輿地志七》 <山川安陸縣>에서 “大鶴山은 安陸縣 동쪽에서 북서로 15리에 있는데, 吉陽으로부터 구불구불 남으로 이어지고 높이는 40여 仞(역주: 대략 240

塊之氣,⁵⁾ 生洪荒之間,⁶⁾ 連翼軫之分野,⁷⁾ 控荊衡之遠勢,⁸⁾ 盤薄萬古,⁹⁾ 邈然星河,¹⁰⁾ 憑天霓以結峰,¹¹⁾ 倚斗極而橫嶂,¹²⁾ 頗能攢吸霞雨,¹³⁾ 隱居靈仙, 産隋侯之明珠,¹⁴⁾ 蓄卞氏之光寶,¹⁵⁾ 罄宇宙之美,¹⁶⁾ 殫造化之奇,¹⁷⁾ 方與崑崙抗行,¹⁸⁾ 閩風接境,¹⁹⁾ 何人間巫·廬·台·霍之足陳耶?²⁰⁾

〈校記〉

<維揚> 揚이 송축본에는 원래 '陽'으로 되어 있다. 咸本²¹⁾·郭本²²⁾·王本²³⁾·全唐文에서는 모두 '揚'으로 되어 있고, 陸本²⁴⁾에서는 '陽'으로 되어 있다. 침영이 '揚'이 옳다고 생각해서 '揚'으로 고쳤다.

<抗行> '行'이 咸本에서는 '衡'으로 되어 있다.

후 320척]인데 마치 학이 날개를 펼 모양이다. 그 남쪽으로 小鶴山이 있는데, 높이는 10仞(역주: 70척 혹은 80척)이 못되는데 정상에는 맑은 못이 있다.(大鶴山在縣東北西十五里, 自吉陽蜿蜒而南, 高四十餘仞, 如鶴展翅. 其南有小鶴山, 高不十仞, 頂有清池.)"라고 하였다. ○金衣: 학의 깃 색깔로 黃鶴을 말한다. 王琦는 "학의 색은 희기 때문에 '金衣雙鶴'이라 한 것은 黃鶴을 이른다.(鶴色白, 而曰金衣雙鶴, 謂黃鶴也.)"라고 하였다.

- 4) 衡: 머금다. ○飛書: 서신을 날듯이 전하다. ○錦書: 비단을 사용하여 쓴 서신. ○維揚: 維揚은 揚州의 별칭이다. 《書·禹貢》에 "회수와 바다 사이에 양주가 있다.(淮海惟揚州)"라는 말이 있는데, 후인들이 '維揚' 두 글자를 취하여 揚州의 별칭으로 삼았다.
- 5) 僕: 옛날에 남자들이 자신을 낮추어 칭하는 말. 여기에서는 壽山을 가리킨다.
- 6) 大塊: 조물주, 대자연, 대지, 천지 사이 등. 《莊子·齊物論》에 "무릇 조물주가 기트림을 하니, 그것을 바람이라 한다.(夫大塊噫氣, 其名爲風.)"라고 하였다. 成玄英의 疏에서 "大塊라는 것은 조물주의 명칭이며 또한 자연의 지칭이다.(大塊者, 造物之名, 亦自然之稱也.)"라고 하였다. 《淮南子·傲眞訓》에서 "무릇 대자연은 나에게 형체를 주고, 삶으로 나를 수고로이 하였다.(夫大塊載我以形, 勞我以生.)"라고 하였는데, 高誘는 "대괴는 천지의 사이이다.(大塊, 天地之間.)"라고 주를 달았다. 《文選·張華詩之二》에서 "하늘은 만물을 만들고, 땅은 만물을 기른다.(洪鈞陶萬類, 大塊稟羣生.)"라고 하였는데, 李善은 "대괴는 대지이다.(大塊, 謂地也.)"라고 주를 달았다. 이백의 《春夜宴從弟桃李園序》에 "화창한 봄날은 아름다운 경치로 나를 부르고, 대자연은 문장을 나에게 주었네(陽春召我以煙景, 大塊假我以文章.)"라고 하였다. 여기서 '大塊'는 대자연의 의미이다. ○洪荒: (우주 형성 이전의) 혼돈 몽매한 상태 혹은 (인류의) 까마득한 옛날. 태고적.
- 7) 翼軫之分野: 고대 천문학에서 12星宿로 지상의 州·國을 나누는데 이를 12分野라고 한다. 翼·軫은 荊楚의 分野가 된다. (참고: 〈二分野圖解〉). 《史記·天官書第五》《正義》에 "翼 22성, 軫 4성, 長沙 1성, 轄 2성, 軫 7성을 합하여 모두 鶉尾가 되고 地支에 있어서 巳에 있고, 楚의 分野이다.(翼二十二星, 軫四星, 長沙一星, 轄二星, 合軫七星皆爲鶉尾, 於辰在巳, 楚之分野.)"라고 하였다. 《漢書·地理志》에 "楚地는 翼·軫 分野이다. 지금의 南郡·江夏·零陵·桂陽·武陵·長沙 및 漢中·汝南郡은 楚의 경계를 한계짓는다.(楚地, 翼·軫之分野也. 今之南郡·江夏·零陵·桂陽·武陵·長沙及漢中·汝南郡, 盡楚分也.)"라고 하였다. 《宋書·天文志》에 "翼·軫은 荊州의 分野이다.(翼軫, 荊州之分.)"라고 하였다.

淮南의 小壽山은 삼가 동쪽 봉우리 한 쌍의 黃鶴으로 하여금, 비단 서신을

(二分野圖解)：地支·方位·星次·星宿·分野와 黃道十二宮 대조표

| 地支 | 方位 | 十二星次 | 二十八宿 | 十二分野 | 黃道十二宮 |
|----|------|-------|-------|------|-------|
| 醜 | 北方玄武 | 星紀 | 鬥·牛 | 吳·揚州 | 摩羯座 |
| 子 | 北方玄武 | 玄枵·顛頊 | 虛·危·女 | 齊·青州 | 寶瓶宮 |
| 亥 | 北方玄武 | 誦訾·豕韋 | 壁·室 | 衛·並州 | 雙魚宮 |
| 戌 | 西方白虎 | 降婁 | 婁·奎 | 魯·徐州 | 白羊宮 |
| 酉 | 西方白虎 | 大梁 | 畢·昴·胃 | 趙·冀州 | 金牛宮 |
| 申 | 西方白虎 | 實沈 | 參·觜 | 晉·益州 | 雙子宮 |
| 未 | 南方朱雀 | 鶉首 | 鬼·井 | 秦·雍州 | 巨蟹宮 |
| 午 | 南方朱雀 | 鶉火 | 柳·星·張 | 周·三河 | 獅子宮 |
| 巳 | 南方朱雀 | 鶉尾 | 翼·軫 | 楚·荊州 | 室女宮 |
| 辰 | 東方蒼龍 | 壽星 | 角·亢 | 鄭·兗州 | 天秤宮 |
| 卯 | 東方蒼龍 | 大火 | 心·房·氐 | 宋·豫州 | 天蠍宮 |
| 寅 | 東方蒼龍 | 析木 | 箕·尾 | 燕·幽州 | 人馬宮 |

- 8) 控: 제압하다. 제어하다. ○荊衡: 荊州와 衡州. 일설에는 荊衡을 荊山·衡山이라 하였다. ○遠勢: 요원한 기세.
- 9) 盤薄: 광대무변. 詹鍇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天津:百花文藝出版社, 1996, 3975 쪽. 이하《集評》이라 함)에서는 “건고하게 자리 잡아 유지하고 있는 모양(據持牢固貌)”이라고 하였다. 《李白文選》, 27쪽에서는 ‘盤薄’은 ‘磅薄과 통하며 ‘宏偉’의 의미라 하였다.
- 10) 邈然:悠遠한 모습. ○星河: 은하수
- 11) 憑: 의거하다. ○天霓: 天際, 天邊 즉 하늘가. ‘霓’은 ‘倪’와 통한다. 《莊子·齊物論》에 “무엇을 자연의 분계와 화합한다고 말하는가?(何謂和之以天倪?)”라고 하였는데, 郭象은 “天倪란 자연의 分界이다.(天倪者, 自然之分也.)”라고 주를 달았다. 張衡의 《東京賦》에서 “龍虎를 그린 깃발은 하늘 가의 기운까지 치켜 올라가고(雲旗拂霓.)”라고 하였는데, 薛綜은 “霓는 하늘가의 기운이다.(霓, 天邊氣也.)”라고 주를 달았다.
- 12) 斗極: 북두성. 《爾雅·釋地》에서 “북방은 북두성을 머리에 이고 있어서 空桐이 된다.(北戴斗極爲空桐.)”라고 하였다.
- 13) 攢吸: 모으다. ○霞雨: 하늘과 땅 사이의 정령의 기운.
- 14) 隋侯之明珠: 전국시대 수나라 임금(隋侯)의 구슬. 수나라는 澗水에 가까운데, 澗水에서는 구슬이 나왔다. 신령한 뱀은 이곳에서 나오는 구슬을 물어다 은혜를 베푼 자에게 은혜를 갚았다. 수나라 임금이 이곳에서 그 구슬을 얻었기에 ‘수후의 구슬’이라 하였다.(이상 成玄英의 《莊子疏》 참고) 《莊子·讓王》에서 “지금 또한 여기에 사람이 있는데, 수후의 구슬로써 천 길 높이에 있는 새를 쫓았다면, 세상 사람들은 만드시 비웃었을 것이다. 어찌서 인가? 사용한 것은 귀중한 것이지만, 잡으려는 것은 하찮은 것이다.(今且有人於此, 以隋侯之珠, 彈千仞之雀, 世必笑之. 是也何? 則其所用者重, 而所要者輕也.)”라고 하였다. 《淮南子·覽冥訓》에서 “수후의 구슬·화씨의 옥과 같은 것은 얻으면 부유해지고, 잃으면 빈천해진다.(譬如隋侯之珠, 和氏之璧, 得之者富, 失之者貧.)”라고 하였는데, 高誘는 “수나라 임금이 큰 뱀이 상처를 입고 잘라져 있는 것을 보고는 약을 발라 주니, 나중에 뱀이 강속에서 큰 구슬을 물어다 그에게 보답하였다. 이로써 ‘隋侯之珠’라고 하였으니, 아마도 明月珠이다.(隋侯見大蛇傷斷, 以藥敷之, 後蛇於江中銜大珠以報之, 因曰隋侯之珠, 蓋明月珠

물고서 구름 속을 날아 維揚에 계신 孟公께 전하게 하며 아뢰입니다. “저 壽山은 대자연의 기운을 품고 있으며 까마득한 옛날에 태어나서, 翼·軫의 分野를 연

也.)”라고 주를 달았다.

- 15) 卞氏之光寶: 卞氏의 璧 즉 ‘和氏之璧’을 말한다. 《史記·鄒陽列傳》에서 “卞和가 옥을 바쳤는데, 초나라 왕이 그의 발꿈치를 잘랐다.(卞和獻寶玉, 楚王刑之.)”라고 하였다. 《韓非子·和氏》에는 다음의 내용이 있다. “초나라 사람 화씨가 楚山에서 옥돌을 주워서 받들고서 厲王에게 그것을 바쳤다. 여왕이 玉人으로 하여금 그것을 감정하게 하였는데, 옥인이 말하였다. ‘돌입니다.’ 왕은 화씨가 속였다고 여겨, 그의 왼쪽 발의 발꿈치를 잘랐다. 여왕이 죽고, 무왕이 즉위하자, 화씨는 또 그 옥돌을 받들어 무왕에게 바치니, 무왕이 옥인으로 하여금 그것을 감정하게 하였는데, 또 말하였다. ‘돌입니다.’ 무왕은 또 화씨가 속였다고 여겨, 그의 오른쪽 발의 발꿈치를 잘랐다. 무왕이 죽고 문왕이 즉위하자, 화씨는 이에 그 옥돌을 안고 초산 아래에서 삼일 밤낮을 우니 눈물이 다하고 피가 이어졌다. 왕은 이를 듣고 사람을 시켜 그 까닭을 물어 ‘천하에 월형을 받은 자가 많은데, 그대는 어찌서 슬피 우는가?’ 라고 하였다. 화씨가 ‘저는 월형을 받은 것을 슬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보옥을 돌이라 품평한 것을 슬피하는 것이며 곧은 선비를 사기꾼이라 부르니, 이것이 제가 슬피하는 까닭입니다.’ 라고 하였다. 문왕은 이에 옥인으로 하여금 그 옥을 다듬게 하여 보옥을 얻고 마침내 명하여 ‘화씨의 구슬’이라 하였다. (楚人和氏得玉璞楚山中, 奉而獻之厲王. 厲王使玉人相之, 玉人曰, ‘石也.’ 王以和爲誑, 而刑其左足. 及厲王薨, 武王即位, 和又奉其璞而獻之武王, 武王使玉人相之, 又曰, ‘石也.’ 王又以和爲誑, 而刑其右足. 武王薨, 文王即位, 和乃抱其璞而哭於楚山地下, 三日三夜, 泣盡而繼之以血. 王聞之使人問其故曰, ‘天下之刑者多矣, 子奚哭之悲也.’ 和曰, ‘吾非悲刑也, 非夫寶玉而題之以石, 貞士而名之以誑, 此吾所以悲也.’ 王乃使玉人理其璞而得寶焉, 遂命曰, ‘和氏之璧.’) ”
- 16) 磬: 다하다. 극진하게 하다.
- 17) 殫: 다하다. ○造化: 자연의 조화를 말한다. 《李白集校注》, 28쪽에서는 자연계의 創造와 化育이라 하였다.
- 18) 崑崙: 곤륜산. 《水經注卷一·河水》에서 “곤륜산에는 3층이 있는데, 가장 아래는 樊桐이라 하는데, 또 板桐이라고도 한다. 제2층은 玄圃라 하는데, 또 閨風이라고도 한다. 맨 위 1층은 層城이라 하는데 또 天庭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天帝가 거주하는 곳이다. (崑崙之山三級: 下曰樊桐, 一名板桐; 二曰玄圃, 一名閨風; 上曰層城, 一名天庭; 是爲天帝之居.)”라고 하였다. ○抗行: 並行하다. 대등하다. 서로 위아래가 아니다.
- 19) 閨風: 산 이름. 전하는 바에 따르면, 신선이 산다고 한다. 崑崙의 꼭대기에 있다.
- 20) 何人間巫·廬·台·霍之足陳耶?: 巫는 巫山으로 지금의 四川·湖北 두 성의 변경에 있다. 廬는 廬山인데, 일명 匡山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殷·周 사이에 匡氏 형제가 이곳에 오두막 집을 짓고 은거하여 이와 같이 불렀다. 江西省 북부, 鄱陽湖와 長江의 물가에 있다. 台는 天台山을 말하는데, 浙江省 동부에 있다. 霍은 霍山을 말하는데 安徽省 서부에 있다. 그 주봉은 지금의 霍山縣의 남쪽에 있다. ○陳: 진술하다. 말하다. 이 구는 壽山이 비록 작지만, 그 기이하면서도 아름다움이 巫山·廬山·天台山·霍山 등의 명산에 뒤지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 21) 明鮑松이 編한 正德八年(서기 1513년) 自刻本 《李杜全集》83권 중의 《李翰林集》30卷.
- 22) 《四部叢刊》을 영인한 郭雲鵬의 《分類補注李太白詩》30卷.
- 23) 乾隆間(서기 1736년-1796년)에 출판된 王琦가 주석을 한 《李太白文集》36卷 및 1977년 中華書局的 校刊本 《李太白全集》.
- 24) 明 正德14年(서기 1519년)에 陸元다가 간행한 《李翰林集》10卷.

결하고, 荊州·衡州의 요원한 기세를 제어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동안 광대무변하게 자리하고 있고 은하수는 아득하게 떠 있으며 하늘 가에 기대어 봉우리는 연결되고 북두성에 기대어 산은 가로 놓여 있습니다. 저 壽山은 또한 자못 천지 사이의 정령의 기운을 모을 수 있으며 신선을 은거하게 하며 隋侯의 주옥과 같은 보물이 나고 화씨의 옥과 같은 보배를 쌓아두고 있으며 우주의 아름다움을 극진히 하고 조화의 기묘함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 壽山은 바야흐로 곤륜산과 서로 대등하고 閩風과 서로 이어져 있으니, 어찌 저 인간의 巫山·廬山·天台山·霍山이 말할 만 한 것이겠나이까?

2.2 어제 은자 이백이 거처하는 곳에서

一昨於山人李白處奉見吾子移文,²⁵⁾ 責僕以多奇, 叱僕以特秀, 而盛談三山五嶽之美, 謂僕小山無名無德而稱焉. 觀乎斯言, 何太謬之甚也? 吾子豈不聞乎? 無名爲天地之始, 有名爲萬物之母.²⁶⁾ 假令登封禋祀,²⁷⁾ 曷足以大道譏耶? 然皆損人費物,²⁸⁾ 庖殺致祭,²⁹⁾ 暴殄草木,³⁰⁾ 鑄刻金石,³¹⁾ 使載圖典,³²⁾ 亦未足爲貴乎!

25) 山人: 은자. 王勃의 <贈李十四>에 “야객은 모옥을 그리워하고, 은자는 숲속을 좋아한다네. (野客思茅宇, 山人愛竹林.)”에 그 용례가 있다. ○吾子: 맹소부에 대한 존칭.

26) 無名爲天地之始, 有名爲萬物之母: 《老子》1장에는 “無名은 천지의 시작이요, 有名은 만물의 어머니이다. (無名天地之始, 有名萬物之母.)”라고 되어 있다.

27) 假令: 만약. ○登封: 고대에 제왕이 산에 올라 봉선함을 말한다. ○禋祀: 하늘에 대한 제사. 신에게 제사하는 희생물과 玉帛을 나무 위에 놓고, 나무에 연기를 피워 연기가 올라가게 해서 하늘에 고한다. 《漢書·武帝紀》에서 “漢 武帝 元封 元年(역주: 기원전110年), 여름 4월, 계묘에 上還, 태산에 올라 제사를 지냈다. (元封元年, 夏四月, 癸卯, 上還, 登封泰山.)”라고 하였다. 《周禮·春官·大宗伯》에 “禋祀로 하늘의 상제에게 제사하고, 實柴로 日月星辰에게 제사하고, 燎燎로 司中·司命·風師·雨師에게 제사한다. (以禋祀祀昊天上帝, 以實柴祀日月星辰, 以燎燎祀司中·司命·風師·雨師.)”라고 하였다. 또 《左傳·隱公十一年》에서는 “우리 자손들은 자기들의 멸망을 근심할 겨를 마저 없는데, 하물며 許 나라 조상을 제사지낼 수 있으리오?(吾子孫其覆亡之不暇, 而況能禋祀許乎?)”라고 하였는데, 杜預가 “정결과 재계로서 제사 올리는 것을 禋祀라고 한다. (絜齋以享, 謂之禋祀.)”라고 주를 달았다. 《正義》에서 “《釋詁》에 이르길, 禋은 제사의 의미이다. 孫炎은 이르길, 禋은 청결과 공경으로 지내는 제사이다. 《國語》에 이르길, 정성의 뜻으로 제사 올리는 것이 禋이다. …청결과 재계로써 신에게 바치는 것을 말한다. (《釋詁》云: 禋, 祭也. 孫炎曰: 禋, 絜敬之祭. 《國語》曰: 精意以享, 禋也. ……言絜清齋敬以獻神也.)”라고 하였다.

且達人莊生,³³⁾ 常有餘論,³⁴⁾ 以爲尺鷃不羨於鵬鳥,³⁵⁾ 秋毫可並於太山.³⁶⁾ 由斯而談, 何小大之殊也?

〈校記〉

<一昨> 郭本·劉本³⁷⁾·全唐文에는 모두 ‘昨’으로 되어 있고 ‘一’이 없다.

<奉見> 郭本·全唐文에는 ‘奉’字가 없다.

<移文> ‘文’이 全唐文에는 ‘白’으로 되어 있다.

<叱僕> ‘叱’이 咸本·陸本·郭本·劉本에는 모두 ‘鄙’로 되어 있다. 咸本·陸本·郭本에는 ‘鄙’ 아래에 모두 “一作叱”이라는 주가 있다.

<無德> 校注本에서는 ‘無德’은 당연히 ‘無得’으로 되어야할 것 같다고 하였다. 첨영은 ‘無德’ 또한 통할 수 있다고 하였다.

<吾子> ‘吾’가 劉本에서는 ‘君’으로 되어 있다.

<然能> ‘能’이 咸本·陸本·郭本·劉本·全唐文에는 모두 ‘皆鄙’로 되어 있다. 何校陸本³⁸⁾에서는 ‘皆’를 ‘能’으로 고쳤다.

28) 損人費物: 사람을 수고롭게 하고 재물을 소비하다.

29) 庖殺致祭: 庖丁이 희생을 멋대로 잡아 제물로 보낸다.

30) 暴殄草木: 暴殄의 원래 의미는 임의로 해치다. 여기에서는 ‘훼손하다’의 의미이다.

31) 鐫刻金石: 鐘鼎이나 碑刻에 공적을 새기다. 鐫刻은 새기다. 金石은 鐘鼎·碑刻을 말한다. 《史記·秦始皇本紀》에 “군신들이 서로 더불어 황제의 공덕을 칭송하며 금석에 이를 새겨 본보기로 삼았다.(群臣相與誦皇帝功德, 刻於金石, 以爲表經.)”라고 하였다.

32) 載: 기재하다. ○圖典: 도서전적.

33) 達人: 달통한 사람. ○莊生: 莊子.

34) 餘論: 식견이 넓은 의론. 고담준론

35) 尺鷃·鵬鳥: 尺鷃은 메추라기, 斥鷃이라고도 한다.尺은 작음을 나타낸다. 鵬鳥는 전설상의 새로 대붕을 말한다. 尺鷃·鵬鳥 두 새에 대한 대비적 묘사가 《莊子·逍遙遊》에 보인다. “메추라기가 이를 비웃으며 말했다. ‘저놈은 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나는 힘껏 뛰어 올라도 불과 몇 길 올랐다가 내려와 쭉 땀 사이를 날아다니는데, 이 또한 날아다니는 것의 최고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저것은 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가?’”(斥鷃笑之曰: “彼且奚適也? 我騰躍而上, 不過數仞而下, 翱翔蓬蒿之間, 此亦飛之至也, 而彼且奚適也?”)

36) 秋毫: 본래는 가을에 나는 날짐승의 가는 털을 말한다. 이로써 극히 작은 것을 비유한다. 《莊子·齊物論》에 “천하에는 가을철의 가는 털끝보다 더 큰 것이 없는 동시에 태산이 작은 것이 될 수도 있다.(天下莫大於秋毫之末而泰山爲小.)”라고 하였다.

37) 明萬曆40年(서기 1612년) 劉世教의 《合刻分體李杜全集》 중 《李翰林全集》 42卷.

38) 淸의 何焯이 陸元다가 간행한 《李翰林集》 10卷에 교주하고 跋을 쓴 책.

<尺鷃> ‘尺’이 全唐文에는 ‘斥’으로 되어 있다.

어제 은자 이백이 거처하는 곳에서 孟少府의 질의 서신을 받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기묘함이 많다고 책망하시고, 특이하다고 질책하시며 三山五嶽의 아름다움을 극찬하시면서 저는 작은 산으로 이름도 없고 덕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살펴보건대, 어찌 그리 잘못된 점이 너무도 심한지요? 맹소부께서는 어찌 들어보지 못하셨나요? 無名은 천지의 시작이요, 有名은 만물의 어머니이라는 말을. 가령 태산에 올라 禮祭를 지낸다면, 어찌 큰 도리로 기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태산에 올라 禮祭를 지내는 것은) 모두 사람을 수고롭게 하며 재물을 소비하는 것이고, 庖丁이 희생을 멧대로 잡아 제물로 보내는 것이고, 초목을 마음대로 훼손하는 것이니, 명산이 鐘鼎이나 碑刻에 새겨져서 도서전적에 기재되게 하더라도 귀중하다 할 수 없겠지요! 또한 달통한 사람 莊子는 항상 고담준론을 하였는데, 메추라기는 대붕을 부러워하지 않고, 날짐승의 가을 깃털은 태산과 견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논한다면, 어찌 크고 작은 것이 다르겠습니까?

2.3 여러 산에 나라의 보배가 숨겨져 있고

怪於諸山藏國寶，隱國賢，使吾君榜道燒山，³⁹⁾ 披訪不獲，⁴⁰⁾ 非通談也。⁴¹⁾ 夫

39) 榜道: 길에 방을 붙이다. 공개적으로 현자를 초빙하다. 《晉書·孫惠傳》에서 “.....혜는 이에 남악일사 진비지를 사칭하여, 동해왕 월에게 글을 올려 요청하였다.월은 글을 살펴보고, 길에 방을 붙여 찾았다. 혜가 이에 몸을 드러내었다. 월은 즉시 그를 기실참군으로 삼고, 문서를 전달하게 하고, 회의에 참가하게 하였다(.....惠乃詭稱南岳逸士秦秘之, 以書干東海王越.....越省書, 榜道以求之, 惠乃出見. 越即以爲記室參軍, 專職文疏, 豫參謀議)”라고 하였다. ○燒山: 산을 태우다. 《三國·魏書·阮瑀傳》에서 裴松之가 “(《문사전》에서 이르기를 ‘태조는 줄곧 阮瑀의 명성을 듣고, 그를 불렀으나, 응하지 않았다. 계속하여 재촉을 당하자 이에 산중으로 도망가 들어갔다. 태조가 사람을 시켜 산을 불살라 阮瑀를 청하고자 하였다. 阮瑀는 도읍에 보내져, 부름에 응하여 조정에 들어갔다(《文士傳》曰: 太祖雅聞瑀名, 辟之, 不應, 連見迫促, 乃逃入山中. 太祖使人焚山得瑀, 送至, 召入)”라고 주를 달았다. 梁나라 邵陵王 蕭綸 <隱居貞白先生陶君碑>의 “길에 방을 붙여 현인을 구하고, 숲을

皇王登極, 瑞物昭至,⁴²⁾ 蒲萄翡翠以納貢,⁴³⁾ 河圖洛書以應符,⁴⁴⁾ 設天網而掩賢,⁴⁵⁾ 窮月竈以率職.⁴⁶⁾ 天不祕寶, 地不藏珍, 風威百蠻,⁴⁷⁾ 春養萬物. 王道無

대위 선비를 불렀다(勝道求賢, 焚林招士)"에 그 용례가 있다.

- 40) 披: (풀 등을) 헤치다.
- 41) 通談: 달통한 말.
- 42) 昭: 환하다. 명백하다.
- 43) 蒲萄翡翠以納貢: 포도와 비취가 공물로 바쳐지다. 《西陽雜俎前集·木篇》에서 "이 물건 [역주: 포도]은 실로 대완국에서 나오는 것인데, 장건이 가져온 것이다. 황색·백색·흑색 세 종류가 있고, 익었을 때는 그 알맹이가 옆으로 늘어져 별이 엮인 듯 구슬이 모인 듯하다. 서역에서는 대부분 빗어서 술로 만드는데, 매번 와서 세공을 바쳤다(此物實出於大宛, 張騫所致, 有黃·白·黑三種, 成熟之時, 子實逼側, 星編珠聚. 西域多釀以爲酒, 每來歲貢)"라고 하였으며, 《藝文類聚》권92에서는 "《설문해자》에서 이르기를 翡는 붉은 참새요, 翠는 푸른 참새라고 하였다. 《周書》에 이르기를 성왕 때 창오가 비취를 바쳤다.……《오록》에서 설종이 상소를 올려 이르기를 일남 땅 멀리서 비취를 구하여 진귀한 감상품으로 충당하소서라고 하였다(《說文》曰: 翡, 赤雀; 翠, 青雀也. 《周書》曰: 成王時, 蒼梧獻翡翠. ……《吳錄》薛綜上疏曰: 日南遠致翡翠, 充備寶玩)"라고 하였다. 王琦는 "포도는 서역에서 나는 것이고, 비취는 남일 땅에서 나는 것이다. 두 가지 사물을 대략적으로 거론하여 먼 곳에서 공물을 바친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蒲萄, 西域所產, 翡翠, 南越所產. 略舉二物, 以見遠方納貢之意)"라고 말하였다.
- 44) 河圖洛書: 河圖는 伏羲氏 때에, 黃河에서 龍馬가 지고 나왔다는 설 다섯 점으로 된 그림으로 동서남북 중앙으로 일정한 수로 나뉘어 배열되어 있으며, 洛書와 함께 周易의 기본 이치가 된 것이다. 洛書는 夏나라의 禹王이 홍수를 다스릴 때에, 洛水에서 나온 거북의 등에 적혀 있었다는 마흔다섯 개의 점으로 된 아홉 개의 무늬이다. 八卦와 洪範九疇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周易·繫辭上》에서 "황하에서 용마가 하도를 지고 나오고 낙수에서 거북 등에 낙서 무늬가 나와, 성인인 이를 준거로 삼았다(河出圖, 洛出書, 聖人則之)"라고 하였는데, 孔穎達이 疏에서 "《春秋緯》에서 이르기를 황하에서는 하늘과 통하는 천포가 나왔고, 낙수에서는 땅을 흐르는 지부가 나왔다. 황하에서는 용이 그림으로 나타내었고, 낙수에서는 거북이가 책으로 감동을 주었다. 《하도》가 9편이 있고, 《낙서》가 6편이 있다. 공안국은 《하도》가 《팔괘》가 맞으며, 《낙서》가 《구주》가 맞다고 생각하였다(《春秋緯》云: 河以通乾出天苞, 洛以流坤吐地符, 河龍圖發, 洛龜書感. 《河圖》有九篇, 《洛書》有六篇, 孔安國以爲《河圖》則《八卦》是也, 《洛書》則《九疇》是也)"라고 하였다. ○應符: 符命(역주: 하늘이 제왕이 될 만한 사람에게 내리는 상서로운 징조)에 들어맞다.
- 45) 設天網而掩賢: 하늘의 그물을 설치하여 현자들을 모으다. 《老子》73장에서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서 성긴 듯하나 놓치는 일이 없다(天網恢恢, 疏而不失)"라고 하였고, 《文選》권42 曹植 <典楊德祖書>에서 "우리 왕은 하늘의 그물을 설치하여 그들을 모았고, 팔방 끝까지 사람을 머물게 하여 그들을 감싸서, 지금 모두 이 나라에 모여 있다(吾王於是設天網以該之, 頓八紘以掩之, 今盡集茲國矣)"라고 하였다.
- 46) 月竈: 月窟. 변방지역. 옛 사람들은 달이 나오는 곳이 서쪽에 있다고 생각해서 月竈를 빌어 極西의 땅을 가리켰다. 《文選》권27 顏延之<宋郊祀歌>의 "서쪽 끝에 손님이 오다(月竈來賓)"에 呂延濟가 "竈는窟이다. 月窟은 서쪽 끝이다(竈, 窟也. 月窟, 西極)"라고 주를 달았다. ○率職: 직무를 봉행하다. "窮月竈以率職"구는 변방지역으로 깊이 들어가서 직무를 수행함을 말한 것이다.

外,⁴⁸⁾ 何賢賢珍玉而能伏匿於巖穴耶?⁴⁹⁾ 所謂勝道燒山, 此則王者之德未廣矣. 昔太公大賢,⁵⁰⁾ 傳說明德,⁵¹⁾ 棲渭川之水,⁵²⁾ 藏虞虢之巖,⁵³⁾ 卒能形諸兆朕,⁵⁴⁾ 感

47) 百蠻: 중국 경내의 각 소수민족을 가리킨다. 《文選》 권1 班固<東都賦>의 “안으로는 중원을 안정시키고, 밖으로는 모든 오랑캐를 누른다(內撫諸夏, 外綏百蠻)”에 그 용례가 있다.

48) 王道無外: 왕도는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公羊傳》隱公元年の “임금은 천하로써 집을 삼기 때문에 밖이 없다(王者無外)”에 何休가 “임금은 천하로써 집을 삼음을 밝힌 것이다(明王者以天下爲家)”라고 주를 달았다. 《管子·版法解》에서는 “무릇 임금은 온 백성을 위에서 덮고 아래에서 실으며 보호하는 것을 겸하여 하여야 한다.……하늘은 모든 것을 덮어서 밖이 없으니, 그 덕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凡人君者, 覆載萬民而兼有之. ……天覆而無外也, 其德無所不在)”라고 하였다.

49) 賢賢: 재덕이 걸출한 인물 ○珍玉: 재주를 품고 쓰임을 기다리는 뛰어난 인재를 비유한다.

50) 太公大賢: 강태공은 크게 현명하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史記·齊太公世家》에 나온다. “여상은 곤궁하고 연로하였던 듯한데 낚시질로 주서백에게 접근하려고 하였다. 서백이 사냥을 나가려고 하다가 짐을 쳤는데, 짐새가 나오기를 ‘잡을 것은 용도 이무기도 아니고, 호랑이도 곰도 아니다. 잡을 것은 패왕의 보필이다’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주서백이 사냥을 나갔다가 과연 위수 북쪽에서 여상을 만났는데,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는 크게 기뻐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선대의 태공 때부터 이르기를 ‘장차 성인이 주나라에 올 것이며, 주나라는 그로 하여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선생이 진정 그분이 아닙니까? 우리 태공께서 선생을 기다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리하여 그를 ‘태공망’이라고 부르며 수레에 함께 타고 돌아와서 師가 되게 하였다.(呂尚蓋嘗窮困, 年老矣, 以漁釣奸周西伯. 西伯將出獵, 卜之, 曰: ‘所獲非龍非彭, 非虎非熊, 所獲王者之輔.’ 於是周西伯獵, 果遇太公於渭之陽, 與語大說, 曰: ‘自吾先君太公曰‘當有聖人適周, 周以興’. 子真是邪? 吾太公望子久矣.’ 故號之曰‘太公望’, 載與俱歸, 立爲師.)”(《사마천 史記3·史記世家(上)》, 정범진 외 옮김, 까치, 1994, 28쪽)

51) 傳說明德: 부월은 뛰어난 덕망을 가졌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史記·殷本紀》에 나온다. “무정제가 꿈속에서 성인을 만났는데 그는 이름이 열이라고 하였다. 무정제는 꿈에서 본 성인의 모습을 대신과 관리들 속에서 찾아보았으나 모두 아니었다. 이에 백관들에게 재야에서 열심히 찾아보게 했는데, 드디어 부협에서 열을 찾아냈다. 이때 열은 죄를 짓고 노역에 끌려 나가서 부협에서 길을 닦고 있던 중이었다. 무정제에게 알현시키니 무정제는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하였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과연 성인이었다. 이에 그를 등용하여 재상으로 삼으니 은나라가 훌륭히 다스려졌다. 무정제는 부협이라는 지명에서 성을 따와서 그를 부열이라고 불렀다.(武丁夜夢得聖人, 名曰說. 以夢所見視群臣百吏, 皆非也. 於是適使百工營求之野, 得說於傳險中. 是時說爲胥靡, 築於傳險, 見於武丁. 武丁曰‘是也’. 得而與之語, 果聖人, 舉以爲相, 殷國大治. 故遂以傳險姓之, 號曰傳說.)”(《사마천 史記1·史記本紀》, 정범진 외 옮김, 까치, 1994, 62쪽) ○明德: 공명정대한 덕행. 아름다운 덕행. 《禮記·大學》의 “큰 배움의 도는 공명정대한 덕행을 밝히는데 있다(大學之道, 在明明德)”에 鄭玄이 “明明德은 자신의 지극한 덕을 드러내고 밝히는 것을 일컫는다(明明德, 謂顯明其至德也)”라고 주석을 달았다.

52) 渭川:渭水, 渭河라고도 한다. 甘肅省 渭源縣 서북쪽 鳥鼠山에서 발원하여 陝西省을 거쳐 洛水와 합쳐진 뒤 黃河로 유입되는 강으로 강태공이 여기에서 낚시를 하며 때를 기다렸다고 한다.

53) 虞虢: 虞땅과 虢땅. 구체적으로 말해서 虞땅과 虢땅의 경계지역을 이야기 한다. 이 지역은

乎夢想. 此則天道闔合, 豈勞乎搜訪哉? 果投竿詣麾,⁵⁵⁾ 捨築作相, 佐周文, 讚武丁. 總而論之, 山亦何罪? 乃知巖穴爲養賢之域, 林泉非秘寶之區.⁵⁶⁾ 則僕之諸山, 亦何負於國家矣?

〈校記〉

<兆朕> 朕은 陸本에서는 '朕'으로 되어 있다. 何校陸本에는 朕을 朕로 고쳐 놓았다.

여러 산에 나라의 보배가 숨겨져 있고, 나라의 현자가 은거하여 우리 임금께서 길에 방을 붙이고 산을 태워 풀 헤치며 찾아다녀도 구하지 못함을 탓하는 것은 달통한 말은 아니십니다.

임금께서 등극하시면 상서로운 물건이 환하게 나타납니다. 포도와 비취가 공물로 바쳐지고, 河圖와 洛書같은 예언서가 符命에 들어맞습니다. 하늘의 그 물을 설치하여 현자들을 모으고, 관리는 서쪽 끝까지 가서라도 직무를 봉행합니다. 하늘은 보배를 숨기지 않고, 땅은 진귀한 것을 감추지 않고, 바람은 사방의 오랑캐를 억누르며, 봄은 만물을 기릅니다. 왕도는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니, 어찌 걸출한 인물과 뛰어난 인재들이 바위 굴에 숨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리요? 이른바 길에 방을 붙이고 산을 태운다는 이것은 임금의 덕이 아직 넓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강태공은 크게 현명하였고, 부열은 뛰어난 덕망을 가졌는데, 위천의 물가에서 지내고 우땅과 곽땅 경계지역 바위에 숨어

교통의 요충지였다고 한다.

54) 朕: 朕과 통한다. 징조의 뜻이다. 《淮南子·俶眞訓》에서 “아직 시작하지 않았으나 시작함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다. 하늘의 양기가 내려오기 시작하고, 땅의 음기가 올라가기 시작하여, 음양이 서로 교착하고 혼합하여, 더불어 유유자적하게 우주 사이에서 자유롭다. 은덕을 입고 조화로우며 온양하고, 빈분하게 모여서 만물과 접하려 하지만 아직 조짐을 만들지 못한 상태이다(有未始有有始者: 天氣始下, 地氣始上, 陰陽錯合, 相與優遊, 競暢於宇宙之間, 被德含和, 繽紛藹菴, 欲與物接而未成兆朕)”라고 하였다. 《說文解字》에서 “朕은 兆이다(朕, 兆也)”라고 하였다.

55) 詣麾: 지휘하다.

56) 林泉: 숲과 샘. 문인, 선비들이 은거하는 곳을 가리키기도 한다.

있어도 결국은 문왕의 점복에서 징조로 드러나고 무정의 꿈속에서 감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도가 우연히 합하여 진 것이니 어찌 찾고 방문함에 힘들일 것입니까? 마침내 강태공은 뉘싯대를 던져두고 지휘관이 되고, 부열은 담쌓는 일을 그만두고 재상이 되어 주문왕을 보좌하고 은의 무정을 도왔습니다. 총괄하여 말하자면, 산이 또한 무슨 죄가 있는지요? 이에 바위의 굴이 현자를 키우는 장소이고, 선비들이 은거하는 숲과 샘은 보배를 숨기는 곳이 아님을 알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말하는 여러 산 또한 어찌 나라에 짐이 되겠습니까?

2.4 근자에 은자 이백이 아미산에서 왔는데

近者逸人李白自峨眉而來,⁵⁷⁾ 爾其天爲容, 道爲貌,⁵⁸⁾ 不屈已, 不干人,⁵⁹⁾ 巢由以來, 一人而已.⁶⁰⁾ 乃虬蟠龜息,⁶¹⁾ 遁乎此山.⁶²⁾ 僕嘗弄之以綠綺,⁶³⁾ 臥之以

57) 逸人: 은자.

58) 爾其: ...으로 말하면, ...에 관해서는. 辭賦에서 상용되는 접속사. ○天爲容, 道爲貌: 《莊子·德充符》에 “장자가 이르기를 ‘도가 용모를 주고 하늘이 형체를 주었다’라고 하였다(莊子曰: 道與之貌, 天與之形)”라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것이 <大鵬賦>序에 나온다. “내가 일찍이 강릉에서 천태산 도사 사마자미를 만났는데, 내가 선풍도굴이 있어 팔방의 밖에서 정신적인 소요를 더불어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余昔於江陵, 見天台司馬子微, 謂余有仙風道骨, 可與神遊八極之表.)” 첨역은 天容道貌는 仙風道骨을 일컫는 것이라고 하였다.

59) 干: 구하다. 사정하다.

60) 巢由: 巢父와 許由. 요임금 때의 은자. 두 사람의 사적은 《莊子·逍遙遊》와 皇甫謐의 《高士傳》에 보인다.

61) 虬蟠龜息: 규룡이 서린 듯 거북이가 호흡하는 듯하다. 《抱朴子·對俗》에 “《史記·龜策傳》에 이르기를 ‘장강과 회하 사이에 사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거북으로 침대를 지탱하여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데, 가족들이 침대를 옮길 때 거북이 여전히 살아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거북이의 수명이 5,600년 이상이 된다는 것이다.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죽지 않으니 거북이가 보통 동물과 아주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니 어찌 거북이가 천년을 사는 걸 의심 하리오? 신선의 경전에서 거북이의 호흡법을 따라하는 것이 어찌 허무맹랑한 것이겠는가?《史記·龜策傳》云: 江淮間居人爲兒時, 以龜支牀, 至後死, 家人移牀而故生, 此亦不減五六十歲也. 不飲不食如此之久而不死, 其與凡物不同亦遠矣, 亦復何疑於千歲哉? 仙經象龜之息, 豈不有以乎!”라고 하였다.

62) 遁: 은거하다.

63) 綠綺: 거문고의 일종. 傅玄 <琴賦序>의 “초장왕에게는 요량이라는 명금이 있었고, 사마

碧雲, 嗽之以瓊液, 餌之以金沙.⁶⁴⁾ 旣而童顏益春, 眞氣愈茂,⁶⁵⁾ 將欲倚劍天外, 挂弓扶桑,⁶⁶⁾ 浮四海,⁶⁷⁾ 橫八荒,⁶⁸⁾ 出宇宙之寥廓,⁶⁹⁾ 登雲天之眇茫.⁷⁰⁾ 俄而李公仰天長吁,⁷¹⁾ 謂其友人曰: 吾未可去也. 吾與爾達則兼濟天下, 窮則獨善一身,⁷²⁾ 安能滄君紫霞,⁷³⁾ 蔭君青松, 乘君鸞鶴, 駕君虯龍, 一朝飛騰,⁷⁴⁾ 爲方丈蓬萊之人耳,⁷⁵⁾ 此方未可也. 乃相與卷其丹書,⁷⁶⁾ 匣其瑤瑟,⁷⁷⁾ 申管晏之談,⁷⁸⁾ 謀

상여에게는 녹기라는 금이 있었고, 채옹에게는 초미라는 금이 있었는데, 모두 이름난 악기였다(楚莊王有鳴琴曰繞梁, 司馬相如有琴曰綠綺, 蔡邕有琴曰焦尾, 皆名器也) 및 《文選》 권30 張載 <擬四愁詩>의 “가인이 나에게 녹기금을 주었으니, 어찌하면 그에게 쌍남금을 드릴거나(佳人遺我綠綺琴, 何以贈之雙南金)”에 그 용례가 있다. 이백 <聽蜀僧濬彈琴>의 “촉 땅 스님이 녹기를 안고, 저녁에 아미봉을 내려가네(蜀僧抱綠綺, 夕下峨眉峯)”에도 그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 64) 嗽: 마시다는 뜻으로 漱와 통한다. 瓊液: 도교에서 복용하면 장생불사한다는 액체로 玉液을 가리킨다. ○餌: 먹다. ○金沙: 金沙라고도 하며 도교에서 金石으로 만든 단약. 王琦는 “瓊液은 옥에서 나는 즙이다. 金沙는 신약이다(瓊液, 玉液也. 金沙, 仙藥也)”라고 하였다.
- 65) 眞氣: 元氣. 《靈樞·刺節眞邪》에서 “眞氣란 하늘로부터 받은 것으로, 곡물의 기와 몸에 병존하며 몸을 채우는 것이다(眞氣者, 所受於天, 與谷氣並而充身者也)”라고 하였다.
- 66) 將欲倚劍天外, 挂弓扶桑: 장차 긴 칼 들고 하늘 저편에 기대서서, 활을 부상 나무에 걸어두네. 宋玉의 <大言賦>에서 “네모진 땅을 수레로 삼고, 둥근 하늘을 수레 덮개로 삼고 긴 칼을 번쩍이며 하늘 저편에 기대신다(方地爲車, 圓天爲蓋, 長劍耿耿倚天外)”라고 하였다. 그리고 屈原의 <離騷>에서 “내 말을 함지에서 물 먹이고, 고삐를 부상 나무에 매어두네(飲余馬於咸池兮, 總余轡乎扶桑)”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朱熹가 “扶桑은 나무 이름이다. 해가 그 아래에서 나온다(扶桑, 木名, 日出其下也)”라고 주를 달았다. 阮籍 <詠懷> 38의 “둥근 활을 부상나무에 걸어두고, 긴 칼은 하늘 저편에 기대어 두네. …… 장차 칼을 하늘 저편에 기대어 두고자 하네. …… 아득한 구름 하늘로 오르네(彎弓挂扶桑, 長劍倚天外. …… 將欲倚劍天外 …… 登雲天之眇茫)”에도 그 용례가 보이는데, 인간세상을 초탈하여 도를 배움을 나타낸다.
- 67) 四海: 온 천하. 세계
- 68) 八荒: 八方. 즉 동·서·남·북·동북·동남·서북·서남의 여덟 방위. 中原에서 지극히 먼 곳, 각지, 온 세상의 뜻으로 사용된다.
- 69) 寥廓: 광활하다. 광대무변하다.
- 70) 雲天: 하늘 높은 곳. 구름 위. 眇茫: 멀고 망망하다.
- 71) 李公: 壽山을 대신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백이라고 하지 않고 이공이라고 하였다.
- 72) 達則兼濟天下, 窮則獨善一身: 이 말은 《孟子·盡心》章句(上)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옛 사람들은 뜻을 얻으면 은택을 백성들에게 베풀었고, 뜻을 얻지 못하면 몸을 닦아 세상에 드러났소. 궁해지면 홀로 그 자신을 선하게 하였으며 영달하면 천하를 겸하여 선하게 하였소.(古之人, 得志澤加於民, 不得志修身見於世. 窮則獨善其身, 達則兼善天下.)”
- 73) 滄: 먹다. ○紫霞: 보랏빛의 노을. 전설에서, 신선이 사는 곳에 서리는 노을이라는 뜻으로, 신선이 사는 궁전을 이르는 말로도 사용된다.
- 74) 一朝: 일시에
- 75) 方丈蓬萊: 중국의 東海에 있다고 전해지는 신선이 산다는 三神山의 하나. 《史記·封禪書》에 관련 내용이 나온다. “전설에 의하면, 이 삼신산은 바래 중에 있어 그 길이 멀지 않았

帝王之術,⁷⁹⁾奮其智能,願爲輔弼,使寰區大定,⁸⁰⁾海縣清一.⁸¹⁾事君之道成,榮

으나, 仙人들은 배가 도착하는 것을 걱정하여 곧 바람을 일으켜 배를 멀리 보냈다고 전해진다. 이미 그곳에 가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선인들과 장생불사의 약이 모두 거기에 있으며, 산 위의 물체, 새, 짐승 등의 색깔은 모두 흰색이며, 궁전은 모두 황금과 白銀으로 건축하였다고 전한다.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 멀리서 바라다보면, 삼신산은 천상의 백운과 같으며, 거기에 도달하여 보면 삼신산은 오히려 수면 아래에 처해 있는 듯하다. 배가 막 다다르려고 하면 바람이 배를 밀쳐내어 시종 거기에 도달할 수 없었다.(蓬萊·方丈·瀛洲, 此三神山者, 其傳在勃海中, 去人不遠; 患且至, 則船風引而去. 蓋嘗有至者, 諸僊人及不死之藥皆在焉. 其物禽獸盡白, 而黃金銀爲宮闕. 未至, 望之如雲; 及到, 三神山反居水下. 臨之, 風輒引去, 終莫能至云.)”(《사마천 史記2·表序, 書》, 정법진 외 옮김, 까치, 1994, 192쪽)

76) 丹書: 붉은 글자의 책. 이백의 <下途歸石門舊居>에 다음과 같이 관련 내용이 나온다. “도가의 책이 늘 책상에 가득한 그대를 부러워하였고, 흰 비단을 비추는 붉은 글씨는 노을마냥 찬란했었지.(羨君素書常滿案, 含丹照白霞色爛.)” 이에 王琦는 “含丹이란 책의 글자가 붉은 색으로 쓰여 있는 것이다. 白이란 비단의 색이다. 붉은 것과 하얀 것이 서로 비추어 노을처럼 찬란한 것이다.(含丹者, 書中之字以朱寫之. 白者絹色. 丹白相映, 爛然如霞矣)”라고 풀이하였다.

77) 匣: 껍데기에 넣다. 瑤瑟: 옥으로 장식된 거문고.

78) 管晏之談: 管仲과 晏嬰. 모두 춘추시대 제나라의 정치가. 이들의 사적에 대해서는 《史記·管晏列傳》에 잘 나와 있다. “管仲 夷吾는 潁水 유역 출신의 사람이다. 그는 젊은 시절에 항상 鮑叔牙와 어울려 지냈는데, 포숙은 그의 才德을 잘 알아주었다. 가난한 관중은 언제나 포숙을 속였지만, 포숙은 늘 그를 잘 대해주었으며 그런 일로 이리저리 따지지 않았다. 얼마 후에 포숙은 齊나라 公子 小白을 섬기게 되었고, 관중은 공자 糾를 섬기게 되었다. 소백이 즉위하여 齊桓公이 되고 규가 죽자, 관중은 잡혀 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러자 포숙이 관중을 천거하니 관중은 등용되어 제나라의 국정을 맡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 제 환공은 천하의 패자가 되어 제후들과 여러 차례 회맹하고 천하를 바로잡았으니, 이는 모두 관중의 지모에 의한 것이었다. …… 관중의 재산은 제나라 왕실의 재산만큼이나 많아 三歸와 反坫을 갖추고 있었으나 제나라 사람들은 이를 사치스럽다고 여기지 않았다. 관중이 죽은 후에도 제나라에서는 그의 정책을 받들어 언제나 다른 제후국보다 강성하였다. 관중 사후 100여 년이 지나 晏자가 출현하였다. 晏平仲 嬰은 萊나라 夷維 사람으로, 齊나라의 靈公, 莊公, 景公을 섬겼으며 근검절약하고 力行하였기 때문에 제나라에서 중용되었다. 晏嬰은 제나라 재상이 된 후에도 식사에는 한 가지 육류만을 먹었으며 침에게는 비단 옷을 입지 못하게 하였다. 또 조정에 들어가서는 임금이 하문하면 곧고 바른말로 응답하고, 하문이 없을 때에는 몸가짐을 바르게 하였으며, 임금의 다스림이 올바를 경우에는 그 명에 순종하고 올바르게 않을 경우에는 그 명의 옳고 그름을 가리어 실행하였으니, 이로 인해서 영공, 장공, 경공의 3대에 걸쳐 제후들 간에 명성을 날리었다.(管仲夷吾者, 潁上人也. 少時常與鮑叔牙游. 鮑叔知其賢. 管仲貧困, 常欺鮑叔. 鮑叔終善遇之, 不以為言. 已而鮑叔事齊公子小白, 管仲事公子糾. 及小白立爲桓公, 公子糾死, 管仲囚焉. 鮑叔遂進管仲. 管仲既用, 任政於齊, 齊桓公以霸, 九合諸侯, 一匡天下, 管仲之謀也. ……管仲富擬於公室, 有三歸·反坫, 齊人不以爲侈. 管仲卒, 齊國遵其政, 常彊於諸侯. 後百餘年而有晏子焉. 晏平仲嬰者, 萊之夷維人也. 事齊靈公·莊公·景公, 以節儉力行重於齊. 既相齊, 食不重肉, 妾不衣帛. 其在朝, 君語及之, 卽危言, 語不及之, 卽危行. 國有道, 卽順命; 無道, 卽衡命. 以此三世顯名於諸侯.)”(《사마천 史記5·列傳(上)》, 정법진 외 옮김, 까치, 1994, 15-18쪽.)

79) 帝王之術: 제왕의 책략. 여기에서는 이백이 어릴 때부터 배운 王霸之道를 말한다. 이백

親之義畢,⁸²⁾ 然後與陶朱留侯, 浮五湖, 戲滄洲,⁸³⁾ 不足爲難矣. 卽僕林下之所隱

<經亂離後天恩流夜郎憶舊遊書懷贈江夏韋太守良宰>의 “패왕의 책략을 학습하고, 관리가 되는 영광을 기대하였다(試涉王霸略, 將期軒冕榮)”에 그 용례가 있다.

80) 實區: 實宇. 전국. 온 천하. <後漢書·逸民傳>序의 “그들은 비록 고집스럽게 명예를 취하고자 하는 부류이지만, 매미가 어지러운 먼지 속에서 빠져나와 스스로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과 같으니, 피와 교묘한 속임수로 치장하여 허망한 이익을 쫓는 무리와 다르지 아니한가?(彼雖經經有類沽名者, 然而蟬蛻蠱埃之中, 自致實區之外, 異夫飾智巧以逐浮利乎?)” 및杜甫 <解悶·八>의 “전해진 훌륭한 시구는 온 누리에 가득하고, 아직 풍류가 끊어지지 않음은 상국(역주: 王維)이 있어 가능했네(最傳秀句實區滿, 未絕風流相國能)”에 그 용례가 있다.

81) 海縣: 神州. 나라. 張說 <奉和聖制千秋節宴應制>의 “나라가 은혜 입은 지가 오래되었고, 조정의 제도에서 선물 바치며 축수하는 것이 새롭네(海縣銜恩久, 朝章獻壽新)” 및 이백의 <獄中上崔相洵> “현명한 재상인 그대는 음양의 기운을 조화시켜, 나라가 다시 강령함을 기뻐하네(賢相變元氣, 再欣海縣康)”에 그 용례가 있다. <校注>에서는 “海縣은 海宇를 말하는 것 같다(海縣猶言海宇)”라고 하였다.

82) 榮親: 등과급제하여 부모를 명예롭게 하다. <文選>권31 曹植<求自試表>에서 “아버지를 섬기는 것을 등과급제하여 부모를 명예롭게 하는 것보다 중시하였네(事父尚於榮親)”라고 하였는데, 이에 呂尚은 “榮親은 벼슬과 명예를 일컫는다(榮親, 謂爵祿名譽)”라고 주를 달았다. 이백 <贈張相鎬>其一的의 “일생도록 임금의 은덕에 보답하고, 오랜 세월 동안 조상과 가문을 빛내기를 바라네(一生欲報王, 百代期榮親)”에도 그 용례가 있다.

83) 然後與陶朱留侯, 浮五湖, 戲滄洲: 陶朱: 전국시대 越나라의 范蠡 ○留侯: 漢나라의 張良 ○五湖: 고대의 吳越 지역의 호수, 강남 지역의 5개 큰 호수, 洞庭湖 등의 설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단지 은둔의 장소를 가리킨다. ○滄洲: 동쪽 바다 가운데 있는 신선이 사는 곳으로 滄浪洲라고도 한다. <史記·越王句踐世家>에 陶朱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구천은 패왕이 되었으며, 범려는 상장군이 되었다. 월나라로 돌아와서, 범려는 너무 커진 자신의 명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여겼고, 게다가 구천의 사람됨은 어려울 때는 같이할 수 있어도, 편안할 때는 함께 하기 어려우므로, 사직서를 써서 구천에게 말하기를 ‘신이 듣건대, 국왕이 심려하시면 신하는 고생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국왕이 모욕을 당하시면 신하는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전에 왕께서 회계에서 모욕을 당하셨는데, 제가 죽지 않았던 것은 복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그 치욕도 설욕하였으니, 저는 회계의 모욕에 대한 죄를 받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구천은 말하기를 ‘나는 월나라를 둘로 나누어 그대에게 주려 하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그대를 벌하겠소’라고 하였다. 범려는 말하기를 ‘군주는 자신의 명령을 집행하고, 신하는 자기의 희망을 실행할 뿐입니다’라고 하고, 가벼운 보물을 간단히 챙겨 집안 식솔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서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구천은 회계산에 표시를 하여 범려의 봉읍지로 삼았다. 범려는 배를 타고 나아가 제나라에 도착하여 성과 이름을 바꾸고 스스로 鸕夷子皮라고 칭하였다. 그는 해변가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고생을 하며 온 힘을 다하여, 아들과 함께 생산에 노력하였다. 오래되지 않아서 곧 재산이 수십만 금에 달하게 되었다. 제나라 사람들이 그가 현명하다는 것을 듣고서 그를 相國으로 삼았다. 범려는 탄식하며 말하기를 ‘집에서는 천금의 재산을 이루고, 벼슬살이로는 상국에 까지 이르렀으니, 보통 사람으로서는 정점까지 간 것이다. 존귀한 이름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것은 불길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곧 그는 상국의 인장을 돌려주고, 재산을 갈라 친구와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귀중한 보물만 챙겨서 몰래 빠져나갔다. 陶에 이르러 생각하니 그곳은 천하의 중심이므로 교역을 하면 각지와 통하여서 재산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스스로 陶朱公이라고 칭하고, 아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

容,⁸⁴⁾ 豈不大哉?⁸⁵⁾ 必能資其聰明,⁸⁶⁾ 輔以正氣,⁸⁷⁾ 借之以物色,⁸⁸⁾ 發之以文章,⁸⁹⁾ 雖煙花中貧,⁹⁰⁾ 沒齒無恨.⁹¹⁾ 其有山精木魅,⁹²⁾ 雄虺猛獸,⁹³⁾ 以驅之四

며, 물건을 사서 쌓아놓았다가 시기를 기다려 되팔아 1할의 이윤을 남겼다. 그는 오래되지 않아 엄청난 재산을 모았고, 세상 사람들은 도주공을 찬양하였다.(句踐以霸, 而范蠡稱上將軍. 還反國, 范蠡以爲大名之下, 難以久居, 且句踐爲人可與同患, 難與處安. 爲書辭句踐曰: 「臣聞主憂臣勞, 主辱臣死. 昔者君王辱於會稽, 所以不死, 爲此事也. 今既以雪恥, 臣請從會稽之誅。」 句踐曰: 「孤將與子分國而有之. 不然, 將加誅於子。」 范蠡曰: 「君行令, 臣行意。」 乃裝其輕寶珠玉, 自與其私徒屬乘舟浮海以行, 終不反. 於是句踐表會稽山以爲范蠡奉邑. 范蠡浮海出齊, 變姓名, 自謂鴟夷子皮, 耕於海畔, 苦身戮力, 於子治產, 居無幾何, 致產數十萬. 齊人聞其賢, 以爲相. 范蠡喟然嘆曰: 「居家則致千金, 居官則致卿相, 此布衣之極也. 久受尊名, 不祥。」 乃歸相印, 盡散其財, 以分與知友鄉黨, 而懷其重寶, 閒行以去, 止於陶. 以爲此天下之中, 交易有無之路通, 爲生可以致富矣. 於是自謂陶朱公. 復約要父子耕畜, 廢居, 候時轉物, 逐什一之利. 居無何, 則致貲累巨萬, 天下稱陶朱公.)(《삼사천 史記3·世家(上)》, 정범진 외 옮김, 까치, 1994, 278쪽) 《삼사천 史記·留侯世家》에 留侯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유후는 그 즈음 늘 공언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韓나라 재상을 지냈는데, 한나라가 멸망하자 만금의 가산을 아끼지 않고 한나라를 위해서 강대한 진나라에 복수를 하여 천하를 떠들썩하게 하였다. 그리고 지금은 세 치의 혀로 황제의 軍師가 되어 식읍이 만호에 이르고 지위가 제후의 반열에 올랐으니, 이는 평민으로서의 최고의 지위로 나 장랑으로서의 매우 만족스럽다. 그러므로 원컨대 세속의 일일랑 떨쳐버리고 赤松子를 따라 고고히 노닐고자 한다.’ 그리하여 辟穀을 배워 오곡을 먹지 않았고, 道引을 행하여 몸을 가벼이 하였다. 그런데 때마침 고제가 붕어하니, 여후가 유후의 은덕에 감격하여 억지로 음식을 먹게 하면서 말하기를 ‘사람이 한세상을 살아같은 마치 흰 망아지가 튼바구니를 지나는 것과 같은데, 굳이 스스로 그토록 고통스럽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하였다.(留侯乃稱: ‘家世相韓, 及韓滅, 不愛萬金之資, 爲報讎疆秦, 天下振動, 今以三寸舌, 爲帝者師, 封萬戶, 位列侯, 此布衣之極, 於良足矣. 願棄人間事, 欲從赤松子遊耳.’ 乃學辟穀, 道引輕身. 會高帝崩, 呂后德留侯, 乃疆食之, 曰: ‘人生一世間, 如白駒過隙, 何至自苦如此乎!’)(《삼사천 史記4·世家(下)》, 정범진 외 옮김, 까치, 1994, 568쪽)

84) 隱容: 은거하다.

85) 大: 중요하다. 《좌傳·成公十三年》의 “국가의 중요한 일은 祭祀와 전쟁이다(國之大事, 在祀與戎)”에 그 용례가 있다.

86) 資: 주다. 배양하다.

87) 正氣: 광명정대한 기풍

88) 物色: 경치

89) 文章: 文彩. 문장의 멋.

90) 煙花: 봄의 수많은 꽃들이 가득피어 마치 연무와 같은 모습을 말한다. 이백 <黃鶴樓送孟浩然之廣陵>의 “오랜 친구는 광릉 서쪽의 황학루를 떠나, 꽃 무성하게 핀 늦봄에 양주로 내려가네(故人西辭黃鶴樓, 煙花三月下揚州)”에 그 용례가 있다. ○中貧: 쇠락을 만나다. 궁핍한 지경에 이르다. 《문選》권5 左思 <吳都賦>의 “산골짜기는 그로 인해 텅 비게 되고, 내와 개울은 그로 인해 궁핍해 진다(谿壑爲之一罄, 川瀆爲之中貧)”에 그 용례가 있다.

91) 沒齒: 종신토록. 齒는 나이를 뜻한다. 《論語·憲問》의 “종신토록 원망의 말이 없다(沒齒無怨言)”에 그 용례가 있다.

92) 其: 만약. ○山精: 산의 요괴. 《抱朴子·登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포박자가 말하였다: 산요괴의 형태는 다리가 하나인 아이와 같다. 뒤로 걸으며, 기쁘게 와서는 사람을

荒,⁹⁴ 磔裂原野,⁹⁵ 使影跡絕滅,⁹⁶ 不干戶庭.⁹⁷ 亦遣清風掃門, 明月侍坐. 此乃養賢之心, 實亦勤矣. 孟子孟子, 無見深責耶? 明年青春,⁹⁸ 求我於此巖也.

〈校記〉

<峨眉> 송축본에는 원래 峨眉로 되어 있다. 咸本·郭本·劉本에서는 '蛾'가 '峨'로 되어 있다. 劉本에서는 '眉'가 '岨'로 되어 있다. 침영이 '峨'가 옳다고 생각해서 '峨'로 고쳤다.

<眇茫> '眇'가 王本에서는 '渺'로 되어 있다.

<蔭君> '蔭'이 《校注》에서는 '映'으로 되어 있는데, 침영은 잘못된 것이라 하였다.

범한다. 사람이 산에 들어가서, 밤에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면, 산요괴를 고상한 말로 跋라 부르는데, 알고서 跋라 부르면, 감히 사람을 범하지 못한다. 일명 熱內라고도 하며, 역시 겸하여 불려도 된다. 또 북처럼 생긴 산요괴가 있는데, 붉은색이고, 또한 다리가 하나이며, 그 이름을 暉라 한다(抱朴子曰: 山精之形如小兒而獨足, 走向後, 喜來犯人. 人入山, 若夜聞人音聲, 大語其名曰跋, 知而呼之, 卽不敢犯人也. 一名熱內, 亦可兼呼之. 又有山精如鼓, 赤色, 亦一足, 其名曰暉). ○木魅: 옛날에는 樹木의 요괴를 가리켰다. 魅에 대해 賈公彥의 《周禮疏》에서는 "魅는 사람의 얼굴과 짐승의 몸으로, 네발을 가졌다. 사람을 잘 미혹하고, 山林의 이상한 기운에 의해 생겼는데, 사람에게 해롭다(魅, 人面獸身而四足, 好惑人, 山林異氣所生, 爲人害)"라고 하였다. 《說文》에서는 "魅는 늙은 요괴이다(魅, 老精物也)"라고 풀이하였다. 木魅에 대해서는 鮑照 《蕪城賦》의 "나무귀신, 산귀신, 들판의 쥐, 도시의 여우, 비바람에 우짖는 소리, 저녁에 들리더니 아침까지 이어 지네(木魅山鬼, 野鼠城狐, 風嘯雨嘯, 昏見晨趨)" 및 이백 <過四皓墓>의 "마치 나무 요괴가 바람이 윙윙거리며 지나 가게 하고, 산 요괴는 비가 싸아 하며 돌게 하네(木魅風號去, 山精雨嘯旋)"에 그 용례가 있다.

93) 雄虺猛獸: 독사와 맹호. 《楚辭·招魂》에 "대가리가 아홉인 독사,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이네.(雄虺九首, 往來儻忽)"라고 하였는데, 이에 《文選》 五臣이 "虺은 또한 뱀의 이름이다(虺亦蛇名)"라고 주를 달았다. 王琦는 "猛獸는 猛虎이다. 당나라 사람들은 虎자를 휘하여, 어떤 때는 武로 바꾸어 부르거나, 어떤 때는 獸로 바꾸어 불렀다(猛獸, 猛虎也. 唐人諱虎, 或易稱武, 或易稱獸)"라고 하였다.

94) 四荒: 사방의 황량한 곳.

95) 磔裂: 수레로 사람의 몸을 찢다. '농지처참'의 뜻으로도 사용된다.

96) 影迹: 사물의 형상과 자취. ○絕滅: 모조리 없애버리다.

97) 干: 간섭하다. 침범하다. ○戶庭: 집밖의 뜰. 가문. 집안.

98) 青春: 봄. 봄에 초목이 푸르기 때문에 青春이라고 한다. 《楚辭·大招》의 "푸른 봄은 겨울을 이어 받고, 해는 밝게 빛나는구나(青春受謝, 白日昭只)" 및 杜甫 <聞官軍收河南河北>의 "대낮부터 노래하고 술 마셔야지. 푸른 봄에 짝 지어 고향에 돌아가기 좋구나(白日放歌須縱酒, 青春作伴好還鄉)"에 그 용례가 있다. 이백 <寄遠> 其四의 "푸른 봄은 다시 지나가고, 시간은 갑자기 늙음을 재촉하네(青春已復過, 白日忽相催)"에도 그 용례가 있다.

<此方> ‘方’이 郭本·劉本·全唐文에서는 ‘則’으로 되어 있다. 陸本에서는 ‘方’으로 되어 있고 何校陸本에서는 ‘則’으로 고쳐 놓았는데, 批에서 “方은 晏本에서는 則이다(方, 晏本則)”라고 하였다. 黃校繆本⁹⁹⁾에서는 ‘方’을 ‘則’으로 고쳐 놓았다.

<瑤瑟> ‘瑟’이 全唐文에서 ‘琴’으로 되어 있다.

<隱容> ‘容’이 송촉본에서는 원래 ‘客’으로 되어 있는데, 陸本·郭本·劉本·全唐文에서는 ‘容’으로 되어 있다. 첨영이 ‘容’이 옳다고 생각하여 ‘容’으로 고쳤다.

<輔以> ‘以’가 全唐文에서 ‘其’로 되어 있다.

<不干> ‘干’이 咸本에서 ‘干’으로 되어 있는데, 첨영은 틀린 것이라 하였다.

<侍坐> ‘坐’가 劉本에서 ‘生’으로 되어 있는데, 첨영은 틀린 것이라 하였다.

<實亦勤矣> ‘實’은 《校注》에서 ‘斯’로 되어 있는데, 첨영은 틀린 것이라 하였다.

근자에 은자 이백이 아미산에서 왔는데, 그 용모가 선풍도꼴이고 자신을 굽히지 않고 남에게 사정을 하지 않는 점으로 말하면, 巢父와 許由이래 이백 혼자뿐입니다. 규룡이 서린 듯 거북이가 호흡하는 듯이 이 산에 은둔해 있습니다. 저는 일찍이 그가 녹기금을 어루만지고, 푸른 구름에 누워 지내고, 옥즙을 마시고, 선약을 먹게 하였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童顏이 되어 갈수록 젊어지고, 하늘로부터 받은 원기는 더욱 더 풍성해져 장차 긴 칼 들고 하늘 저편에 기대서서 활을 부상 나무에 걸어두고 천하를 부유하고 팔방의 끝까지 가로지르고 광대무변한 우주를 떠나고 멀고 망망한 구름 위를 오르려 하였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이백은 하늘을 우러르며 장탄식을 하며 자신의 친구에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아직 그렇게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나와 그대는 뜻을 얻으면 천하 사람을 구제하고, 뜻을 얻지 못하면 홀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어찌 그대의 보랏빛 노을을 먹고 그대의 푸른 소나무로 그들로 삼고 그대의 난새와

99) 清 黃丕烈이 繆曰芑가 송촉본을 영인한 《李翰林集》 30卷을 교간한 판본.

학을 타고 그대의 규룡을 몰고 단번에 날아올라 방장산과 봉래산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는 아직 할 수 없습니다. 서로 더불어 붉은 글씨로 된 책을 맡고, 옥 거문고를 꺾이에 넣고, 관중과 안영의 담론을 펴고, 제왕의 책략을 피하고,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여 보필함으로써 온 천하를 크게 안정시키고, 온 나라가 청정하고 순일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임금 섬기는 도리를 완수하고 부모를 명예롭게 하는 의리를 다하고서는, 범려와 장량과 더불어 오호를 떠돌며 창주에서 노니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의 숲 아래에서 은거하는 바가 어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이백의 충명을 배양하고 올바른 기풍을 더하고 경치를 빌어 문장으로 발현할 수 있다면, 설사 봄에 수많은 꽃이 가득 피었다가 지더라도 종신토록 여한이 없게 하겠습니다.

만약 산 귀신, 나무 귀신, 독사, 맹호가 있다면 사방의 황량한 곳으로 쫓아 보내 들판에서 찢어 죽여 형체와 자취가 모조리 사라지게 하여 집의 뜰에 침범 못하게 하겠습니다. 또한 맑은 바람을 보내어 문전을 쓸게 하고, 밝은 달은 모시고 앉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자를 양성하는 마음으로, 정말 신실한 것입니다. 맹공님, 맹공님. 저를 깊이 책망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 봄에 이 바위로 저를 찾아오시지요.

2.5 解説

당 현종 연간에 이백은 安陸으로 와서, 이곳을 중심으로 10년의 유람을 시작하였다. 본 문장은 이백이 처음 안륙에 왔을 때 지은 것으로, 그 시기는 대략 開元 15년(727) 봄이다. 이 때 이백은 壽山에서 머무르면서 그 풍광에 매료되어 있었는데, 마침 孟少府의 편지를 받았다. 맹소부는 편지에서 壽山은 작고 이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백이 은거할 만한 곳이 못된다고 여겼다. 이에 이백은 擬人手法로 壽山의 입을 빌어 孟少府의 책망에 회답하며 자신의 '匡君濟世(임금을 보좌하고 세상을 구함)'의 정치포부와 '功成身退(공이 이루어지면

물러남)'의 지향을 밝혔다. 이로써 본 문장은 李白의 사상과 지향을 체현하고 있는 중요 문헌이다. 본 문장은 또한 '移文'체와 壽山의 입을 빌린 제3인칭으로 서술하고 있는 점도 큰 특색이다. 이로써 전편은 서체 산문의 필치로 해학적, 유머적이며 막힘없이 자연스럽다. 기본적으로 賦의 수법을 채용하였고 鋪陳과 起伏를 잘 살렸으며 또한 성물과 전고에 구속되지 않았다. 문장이 호쾌하고 중횡으로 달리면서 이백의 개성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다.¹⁰⁰⁾ 阮堂明은 본 문장이 孔稚圭의 <北山移文>의 영향을 받아 창작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심도 있는 서술을 하였다.¹⁰¹⁾

전편은 내용에 따라 4단락으로 구분된다.¹⁰²⁾ 제1단락은 “淮南小壽山謹使東峰金衣雙鶴”에서 “何人間巫·廬·台·霍之足陳耶”까지이다. 서신의 정보로써 발신자, 전신자, 수신자를 나타내고 壽山의 시대적 久遠, 지리적 위치, 山勢의 웅위, 靈氣의 구유, 물산의 풍부, 지위의 숭고 등을 묘사하였다. 제2단락은 “一昨於山人李白處奉見吾子移文”에서 “由斯而談, 何小大之殊也?”까지이다. 맹소부가 壽山은 작은 산으로 이름도 없고 덕도 없다고 힐책한 것에 대하여 수산이 老莊의 학설을 인용하여 이를 논박하며 회답하였다. 제3단락은 “怪於諸山藏國寶”에서 “亦何負於國家矣?”까지이다. 太公, 傳說의 역사 전고를 들어 왕도가 널리 미친다면, 인재가 궁벽한 곳에 있더라도 반드시 찾아내어 등용한다는 것을 말하였다. 이 단락은 인재가 등용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재위자가 어두워서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산이 드러낼 바가 아니라고 하였다. 제4단락은 “近者逸人李白自峨眉而來”에서 “求我於此巖也”까지이다. 이 단락은 이백의 개성(不屈己, 不干人), 지향(出世學道, 仕宦濟世), 정치이상(功成身退) 등을 진술하였으며 壽山은 이백과 같은 賢才를 배양하고 있음을 말하였다. 이 단락을

100) 이상은 牛寶彤, 《李白文選》(北京: 學苑出版社, 1989), 26쪽을 참고하여 서술하였다.

101) 阮堂明, <亦眞亦假, 亦莊亦諧 — 李白「代壽山答孟少府移文書」探微>, 《孝感學院學報》, 2009년 5기, 51~55쪽.

102) 詹鍈 主編 《李白全集校注匯釋集評》에서는 4단락으로 구분하였다. 본고는 《李白全集校注匯釋集評》을 기본으로 하였기 때문에 4단락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내용의 측면에서 보면, 3단락으로 명확하게 구분된다. 謝育爭, 《李白散文研究》(臺北: 文津出版社, 2012)에서는 3단락으로 나누었는데, 詹鍈이 분류한 4단락 중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을 하나의 단락으로 묶어 놓았다.

통해 이백은 본 문장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주지를 표현하고 있다.

본 문장은 표면적으로 孟少府의 힐책에 대한 壽山의 회답을 주축으로 하여 수산의 입을 빌려 수산이 승고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天地山靈의 정묘함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면으로는 이를 빌어 그 속에서 수양하고 있는 이백을 드러내고 있다.

3. 결 론

<代壽山答孟少府移文書>은 이백이 孟少府의 壽山에 대한 힐책에 대하여 壽山の 입을 빌어 孟少府의 힐책에 회답하며 자신의 '匡君濟世'의 정치포부와 '功成身退'의 인생지향을 밝힌 것이다. 이백은 그의 인생지향과 정치포부를 노장과 유가철학을 상호 교직시켜 드러내었다. 본 문장에 나타난 '匡君濟世'의 정치포부와 '功成身退'의 인생지향은 또한 이백 시문 전체를 관통하는 사상이다. 이로써 본 문장은 후대 연구가들이 이백의 정치포부 및 인생지향을 연구할 때 필수적으로 인용하는 문헌임을 알 수 있다. 본 문장은 이백 서체산문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지만 또한 형식상에서 두 가지 큰 특색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移文'체를 채용하고 있다. '移文'이란 원래 고대에 官署 사이에서 왕래하던 공문의 일종이다. 그러나 이 형식이 문인의 개인 글쓰기에서도 채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移文'의 글쓰기 특성이 동의하지 않는 의견에 대해서 깨우침과 지적을 할 때 사용되며 그 문장은 비교적 온화하게 표현하고 상대의 관점을 바꾸도록 하는데 중점이 있다고 할 때, 이백의 본 문장은 또한 '移文'의 글쓰기 특성과도 부합된다. 다른 하나는 본 문장은 이백이 자신의 정치포부와 인생지향을 표현함에 있어 엄숙한 제1인칭이 아니라 壽山을 의인화하고 그 입을 빌어 제3인칭으로 서술하고 있는 점이다. 글쓰기에서 이 형식은 문장의 주지를 더욱 함축적, 비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예술 효용을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백은 이러한 ‘獨特’한 예술 형식을 통해 짧은 편폭에 자신의 인생지향과 정치 포부를 극대화시켜 표현하였다. 이러한 본 문장에는 또한 강력한 ‘張力’이 형성되고 있다.

본 역주 연구는 이백의 정치포부와 인생지향이 담기고 특색 있는 형식이 운용된 중요문헌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지닌다.

< 參考文獻 >

- 王 琦, 《李太白全集》, 北京: 中華書局, 1977.
- 郁賢皓, 《李白叢考》, 陝西: 陝西人民出版社, 1982.
- 詹 鎡, 《李白詩文繫年》,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4.
- 牛寶彤, 《李白文選》, 北京: 學苑出版社, 1989.
- 安 旗, 《李白全集編年注釋》, 四川: 巴蜀書社, 1990.
- 李 白, 《李太白文集》(宋蜀刻本唐人集叢刊),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4.
- 詹 鎡, 《李白全集校注匯釋集評》,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1996.
- 瞿蛻園·朱金城 校注, 《李白集校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8.
- 謝育爭, 《李白散文研究》, 臺灣: 文津出版社, 2012.
- 황선재, 《이태백 명시문 선집: 시선(詩仙)의 향연》, 서울: 박이정, 2013.
- 朱金城, <論李白的散文>, 《李白學刊》 제1輯, 1987.
- 林心治, <隋唐五代的巴蜀散文(三)>, 《渝州大學學報》 第18卷第2期, 2001.
- 楊蘭凱, <從「代壽山答孟少府移文書」看李白的道家人生哲學>, 《河南農業》, 2008. 12. 23.
- 阮堂明, <亦眞亦假, 亦莊亦諧 — 李白「代壽山答孟少府移文書」探微>, 《孝感學院學報》 5기, 2009.
- 申夏閏, <李白散文譯註(I) — 書類「上安州裴長史書」>, 《中國語文論譯叢刊》, 서울: 중국어문논역학회, 제16집, 2010.

Prose of Li Bai(李白) is a support material to ascertain Li Bai's life and philosophy and to understand Li Bai's poetries. It is also a critical material to shed light on his literary ideology and his world of art. But until now studies on Li Bai conducted in the country and abroad are biased towards research and translation on Li Bai's poetry so its interest in his prose is relatively low. Especially translation comments as a basis of research are marginal. If translation comments of Li Bai's prose have a progress, it will be one of most important material for research on Li Bai.

This prose is the answer to reprimand of Meng Shaofu(孟少府) by personifying Shou Mountain(壽山). It compare that he was talented but he didn't have a favorable opportunity by expressing that Shou Mountain had no name but it was imposing and graceful.

This prose can be divided with four paragraphs. The first paragraph describes topography of Shou Mountain itself by personifying Shou Mountain. The second paragraph responses to reprimand of Meng Shaofu in the light of Taoism, and describes that Shou Mountain wasn't famous but it did not suffer by comparison with famous mountain. The third paragraph refutes Meng Shaofu's reprimand that denigrates Shou Mountain by describing that Shou Mountain is the place where sage lives and treasures are hidden. The fourth paragraph explains writer's ambition and view of living.

This prose corresponds to systemic characteristic of Shu(書). Taoism and idealism of this prose to perform a meritorious deed and to live in retirement are revealed by terse speech euphemistically.

Key Words: Translation and Annotation, Li Bai(李白), Prose, Meng Shaofu(孟少府), Shou Mountain(壽山), Taoism

| 원고접수일 | 심사일정 | 1차수정 | 게재확정 | 출간 |
|---------------|---------------|---------------|---------------|---------------|
| 2016. 10. 28. | 2016. 11. 26. | 2016. 12. 12. | 2016. 12. 15. | 2016. 12. 31. |